

## 제13장 문필활동(1)

강명석의 문필활동(文筆活動)은 전체적으로 잡지, 신문 등에 몇 회의 글을 게재(掲載)했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몇 곳의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주요 필진(筆陣)으로 참여하여 글을 썼는지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소개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더 많은 글이 이곳저곳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계속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찾은 것만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강명석은 『감리교회보(監理教會報)』에 자신의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동명주보(東明週報)』라는 주간잡지(週刊雜誌)에는 영문으로 된 말씀 강론 원고(설교원고)를 번역하여 4회에 걸쳐 연재(連載)했다고도 하였다. [『동명주보(東明週報)』는 1920년대 초의 종합 시사주보(時事週報)로 1922년 9월 4일(월) 창간하여 시사평론(時事評論), 학술(學術), 그리고 문예(文藝) 등 다채(多彩)로운 내용으로 꾸며 발행하였으나 1923년 6월 종간(終刊)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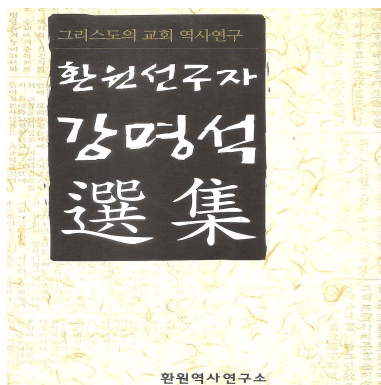
“몇 해 전에 감리교회보(監理教會報)를 통하여 「성 프란시스코[프란치스코(Franciscus)] 전기」를 소개할 때

그의 청년 시대와 교단조직(敎團組織)에 대하여 일부분을 쓰다가 중지한 적이 있다.” [『신학세계』(1933.1.), 「聖(성) 푸란씨쓰코(프란치스코)의 聖生活(성생활)」, 48.]

“얼마 전 『동명주보(東明週報)』 제4면에 「基督(그리스도)과 간디」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홈스(Holmes) 씨가 말씀 강론한 원문(原文)을 번역(翻譯)하여 게재(掲載)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보았다. ‘간디를 그리스도와 같이 지존(至尊)한 종교적 예언자(預言者)와 동열(同列)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독신보』(1923.4.11.), 「톨스토이와 간디의 宗教思想(종교사상)에 대(對) 하야(하여)(2)」]

강명석의 문필활동을 정리하면, 그는 135여 회 이상 여러 방면(方面)의 글들을 썼는데 그가 주요 필진(筆陣)으로 글을 게재한 언론매체는 8개 이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1922년 10월부터 문필활동을 시작하여 1939년 7월까지 약 16년 7개월 동안 매년 7편 이상 즉 1, 2개월에 1편씩의 글을 썼다는 결론이므로 그를 문필가(文筆家)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글들을 모아 환원역사연구소(소장 기준서(奇俊舒) 박사, 강서대학교 전 총장)에서는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선집)』(2007.5.20, 영인본)으로 출판하였다.

그 이후 필자가 개인적으로 찾은 글들도 있다. 그래서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의 글들과 더 찾은 글들을 모아 필자가 일본식 한자를 우리말 한자로, 그리고 한자를 현대어로 언해(諺解)하여 『강명석의 글 모음집』(2007.12.31.)이라는 원고를 가지고 있다. 이제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과 『강명석의 글 모음집』에 있는 강명석의 글들을 원본을 직접 확인한 것을 토대로 언론 매체별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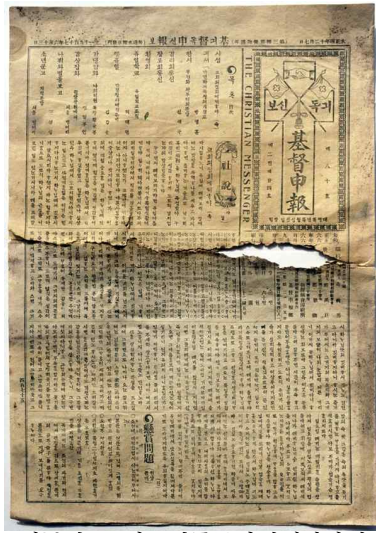


환원 선구자 강명석 선집 표지

## I. 『基督申報(기독신보)』

14가지 주제로 93회 게재(掲載)하였는데, 이 신문에는 가장 많은 글이 다양한 주제로 실려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 15~214.] 『기독신보』

』는 1915년 12월 8일(수) 창간(創刊)된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초교파 기독교 주간신문(週刊新聞)이다. 장로교회의 『예수교 회보』와 감리교회의 『그리스도 회보』를 통합하여 발행한 것으로 ‘복음 정신의 구현자(具現者)’로 교회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신문이다.



기독교신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래 『기독교신보(The Christian Messenger)』였는데, 1937년 폐간(廢刊)되었다. [『예수교 회보』는 1910년 2월 창간되어 1914년 8월 제5권 제33호로 폐간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보(會報)이다. 『그리스도 회보』는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가 1899년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 교회신문으로, 창간 당시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였는데

1905년 『그리스도 회보』로 개명되었다.]

1. 주일학교운동(主日學校運動)에 관한 글로 처녀 작품인 「유년주일학교(유년 주일학교)- 임원 제씨(여러분) 외계(에게)」(경성 姜明錫)라는 제목으로 제2회 연재하였다. (1) 목사 제씨에게(1922.10.25, 5.) (2) 교장(담임 목회자)과 교사 제씨에게(1922.11.1, 5.)

2. 두 사람의 종교사상(religious thought)을 비교하면서 작성한 글인 「톨스토이(Lev N. Tolstoy, 1828.~1910.)와 간디(Mohandas K. Gandhi, 1869.~1948.)의 宗教思想(종교사상)에 對(대) 하여(하여)」(京城 姜明錫)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5회 연재하였다. (1) 1923.4.4, 7. (2) 1923.4.11, 8. (3) 1923.4.18, 8. (4) 1923.4.25, 8. (5) 1923.5.2, 8.

3. 종교철학(宗教哲學)과 종교 생활에 대하여 논리를 전개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인 「宗教的(종교적) 生活(생활)의 必要(필요)」(京城 姜明錫)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3회 연재하였다. (1) 1923.11.7, 1. (2) 1923.11.14, 1. (3) 1923.11.21, 1.

4. 일본 유학 시절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이 담긴 서간문(書簡文)인 「朴淵瑞(박연서) 牧師

(목사)를 迎(영) 함(맞이함)」(姜明錫)이라는 주제로 제2회 연재하였다. (1) 1924.10.29, 2. (2) 1924.11.5, 3.

5. 성서신학(biblical theology) 분야의 논문인 신약학(新約學, New Testament study)의 「新約全書概論(신약전서 개론)」(姜明錫)을 제30회 연재하였다.

(1) 제1장(第一章) 서론, 제1절(第一節) 신약전서 개론의 의의(意義), ① 신약전서 개론을 쓰게 된 동기(動機), ② 신약전서 개론에 대한 사명(使命)(1925.4.8, 6.) (2) ③ 성경 개론에 대한 역사적 연구, 제2절(第二節) 신약전서(新約全書) 성립(成立)의 유래(由來), ① 최초에 기록한 신약전서의 언어(言語)(1925.4.15, 4.) (3) ② 신약전서가 정경이 되기까지의 내력(來歷)(1925.4.22, 4.) (4) ③ 정경 편찬에 대한 기타 의논(議論)과 결론(結論)(1925.4.29, 4.) (5) 제3절(第三節) 신약전서의 사본(사본, 寫本), 사본이라는 뜻과 그 수효, ② 각 사본의 상위(相違) 점(다른 점)에 대하여(1925.5.6, 4.) (6) 계속(1925.5.20, 4.) (7) ③ 사본의 종류, 바티칸 사본(The Codex Vaticanus), 시나이 사본(The Codex Sinaiticus)(1925.5.27, 4.) (8) 알렉산드리아 사본(The Codex Alexandrinus)(1925.6.10, 4.) (9) 에프렘 사본[The Codex Ephraim, 에프라에미 레스크립투스 사본(The Codex Ephraemi Rescriptus)], 더블린 사본(The Codex Dublinensis Rescriptus, 더블린시스 레스크립투스 사

본), 베자 사본(The Codex Bezae), 자색(紫色) 사본[The Codex Purpureus, 페트로폴리타누스 푸르푸레우스 사본(The Codex Petropolitanus Purpureus)](1925.6.17, 4.) (10) 제4절(第四節) 신약전서의(新約全書) 번역(翻譯), ① 고대(古代) 번역, 수리아 말의 번역(1925.7.1, 4.) (11) 수리아 말의 번역- 계속(1925.7.8, 4.) (12) 라틴 말의 번역, 애굽(이집트) 말의 번역(1925.7.15, 6.) (13) ② 근대(近代) 번역, 영어의 번역(1925.7.29, 4.) (14) 각국 말의 번역, 조선 말의 번역(1925.8.12, 4.) (15) 제5절(第五節) 신약전서의 중요(重要)한 연대별(年代別), ① 야소(耶蘇, 예수)의 취임(受任) 시대의 연대별(1925.8.26, 4.) (16)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연대(1925.9.2, 4.) (17) 예수께서 전도하신 연대(1925.9.9, 4.) (18) 예수 돌아가신 연월일(1925.9.23, 4.) (19) ② 사도 시대의 연도별 개론, 사도 시대에 대한 첫날, 사도 시대의 약론(1925.9.30, 4.) (20) 계속(1925.10.21, 4.) (21) 사도 시대의 박해(1925.10.28, 4.) (22) 사도 시대의 연대표(年代表)(1925.11.4, 4.) (23) 제6절(第六節) 신약전서 시대의 역사적 개관, ① 로마제국(Roma帝國)의 역사, 로마제국의 기원과 멸망, 로마제국의 지리, 로마제국의 정책, 로마제국의 국어(1926.6.16, 5.) (24) 로마제국의 도덕 상태(1926.6.30, 4.) (25) ② 팔레스타인(Palestine)의 역사, 팔레스타인의 지리, 팔레스타인의 방언(1926.7.14, 5.) (26) 팔레스타인의 정책, 마카비우스(Maccabeus) 이후로 헤

롯 대왕(Herod the Great)까지(1926.7.21, 5.) (27) 헤롯 대왕의 정책(1926.8.4, 4.) (28) 아켈라오(Archelaus, 아르켈라오스)의 정책(政策), 헤롯 빌립 2세(Herod Philip II)의 정책(1926.8.18, 4.) (29)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의 정책, 아그리파 1세(Agrippa I)의 정책, 아그리파 2세(Agrippa II)의 정책(1926.9.1, 5.) (30) 유대인(Judea人)의 독립운동과 예루살렘의 함락(1926.9.8, 5.)

6. 부산 나 병원(癲病院, 한센병 환자병원, 한센인병원)인 상애원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 즉 나병 환자(한센병 환자)들의 삶의 애환(哀歡)이 담긴 강명석 전도사의 목회실습(牧會實習) 기록인 「感謝(감사), 告白(고백), 呼訴(호소)- 癲病者(나 병자)를 爲(위)하여」(釜山 癲病院에서 姜明錫)라는 제목으로 제9회 연재하였다.

(1) 나 병원 생활을 동경(憧憬)하게 된 매력(魅力)(1926.10.20, 5.) (2) 이상(理想)에서 현실(現實)까지(1926.11.3, 4.) (3) 복(福) 받을 외국인과 정(情) 없는 동족(同族)(1926.11.17, 7.) (4) 주님의 전과 사탄(satan)의 굴혈(窟穴)(1926.11.24, 5.) (5) 몽상(夢想)도 하지 못할 위대한 사업(1926.12.1, 5.) (6) 가련(可憐)한 어린 벼들(1926.12.8, 7.) (7) 나 병자 촌락(村落)(1926.12.15, 3.) (8)방관(傍觀)치 못할 큰일(1926.12.22, 4.) (9) 조선(朝鮮)의 나 병자(1926.12.29, 5.)



7. 조선교회의 자화상(自畫像), 그리고 경제문제(經濟問題)에 있어서 교회와 사회의 괴리(乖離)를 안타깝게 여기며 사실대로 정리하면서, 기독교사회주의(基督教社會主義)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經濟思想(경제사상)의 變遷(변천)과 今日(금일)의 朝鮮教會(조선교회)」(姜明錫)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13회 연재하였다.

(1) 1의1, 2 (1927.5.4, 5.) (2) 1의3 (1927.5.11, 7.) (3) 1의 4, 5 (1927.5.18, 5.) (4) 1의6, 2의1, 2 (1927.5.25, 3.) (5) 2의3, 4 (1927.6.8, 5.) (6) 2의5 (1927.6.15, 5) (7) 2의6, 7, 8 (1927.6.22, 5.) (8) 2의9 (1927.7.13, 4.) (9) 2의9 - 계속 (1927.7.20, 4.) (10) 2의10 (1927.9.14, 4.) (11) 3의1 (1927.9.21, 4.) (12) 3의2 (1927.9.28, 4.) (13) 3의3 (1927.10.5, 4.)

8.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분야의 설교학(說敎學)에 해당하는 말씀 강론원고(講論原稿) 즉 설교원고를 지상강단(紙上講壇)인 「講臺(강대)」라는 제목으로 제4회 목회자(牧會者)들에게 제공하였다.

(1) 겯세마네 동산의 예수(姜明錫, 1927.10.12, 6.) (2) 未知(미지)의 世界(세계)(강명석, 1928.5.23, 7.) (3) 大 旱災(대 한재)(姜明錫, 1929.7.3, 7.) (4) 偉大(위대)한 發見(발견)(姜明錫, 1930.10.8, 2.)

9. 믿음에 관한 에세이(essay)를 기록한 「信仰談叢

(신앙담충)- 믿음에 대하여」(강명석)라는 주제로 설교원  
고처럼 제5회 연재하였다.

(1)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悖逆) 한 세대  
(世代)(1928.1.18, 6.) (2)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1928.1.25, 6.) (3) 믿음의 선물(1928.2.1, 6.) (4) 믿음은 생  
명이다(1928.2.8, 6.) (5) 믿음의 세 계단(1928.2.22, 6.)

10.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宗教)인 불교(佛敎)의  
사찰(寺刹) 기행문(紀行文)인 「石窟庵(석굴암)을 찾아서」  
(姜明錫)라는 제목으로 제11회 연재하였다.

(1) 과거와 현재의 석굴암 소개(紹介)(1931.4.8, 8.) (2)  
김대성(金大城) 약전(略傳)(1931.4.15, 5.) (3) 김대성 약전-  
계속(1931.4.22, 5.) (4) 웅수사(熊壽寺), 장수사(長壽寺), 불  
국사(佛國寺)의 왕래(1931.4.29, 7.) (5) 다보탑(多寶塔), 석  
사자(石獅子)(1931.5.6, 8.) (6) 석가탑(釋迦塔), 석교(石橋),  
청운교(靑雲橋), 영지(影池)(1931.5.13, 8.) (7)영지- 계속  
(1931.5.20, 8.) (8) 석굴암의 유래(1931.5.27, 6.) (9) 불상(佛  
像)의 배치(排置)(1931.6.3, 6.) (10) 수리, 향령(香嶺), 석존  
불상(釋尊 佛像(석가모니 불상, 1931.6.17, 8.) (11) 요내정(遙  
乃井)(1931.6.24, 8.)

11.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며 미국 유학을 떠난  
후부터 상륙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편지로

알리는 서간문(書簡文)인 「朴(박) 兄(형)님에게」(姜明錫)라는 글을 제3회 연재하였다.

- (1) 미국 오는 길에 느끼고 당한 대로(1932.10.19, 6.)
- (2) 이민국(移民局)의 검사와 조사(1932.10.26, 6.) (3) 상항(桑港, 샌프란시스코) 조선 남 감리교회(1932.11.2, 7.)

12. 미국 교파형 교회들의 탐방기(探訪記)를 조선교회와 비교 정리한 「米國教會(미국교회) 側面觀(측면관)」(在美 姜明錫)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연재하였다.

- (1)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순서(1933.10.11, 7.) (2) 아멘, 광고술(廣告術), 남녀공석(男女公席), 성경찬송(聖經讚頌), 교회음악(教會音樂), 찬양대복(讚揚隊服), 찬양 대원, 찬양대 석, 기악(器樂)(1933.10.18, 7.) (3) 음악목사(音樂牧師), 성찬식(聖餐式), 장년 주일학교, 청년회, 선교부, 주방(廚房)(1933.10.25, 7.) (4) 담배, 여전도인, 목사 부인(1933.11.1, 7.)

13. 그리스도의 교회와 환원 운동의 영향을 입고 작성한 목회학(牧會學) 논문인 「전도인의 생활과 그의 일」(在美 姜明錫)이라는 제목으로 제2회 연재하였다.

- (1) 가석(可惜)한 일, 어떤 전도인(傳道)人, 가련한 전도인, 교회, 교회와 형제자매, 전도인과 교회, 전도인과 형제자매, 전도인과 기도(祈禱), 전도인과 음악, 전도인

과 성경(1934.10.24, 5.) (2) 전도인의 계획, 전도인의 인격(人格), 교회와 전도인, 전도인과 설교, 늙지 않는 설교 제목(1934.11.7, 5.)

14. 환원한 후 원형의 교회(신약교회)를 소개한 「그리스도의 교회(마태복음 16:18)」(牧師 姜文錫)라는 논문을 제1회 게재하므로 ‘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였다. 서론, 교회라는 말의 뜻,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름들, 그리스도의 교회, 결론(1937.4.14., 6.)